

지역 가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

- 가뭄 대응을 위한 ‘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’ 개최(7.11.)

- 행정안전부는 강원과 경북 지역의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(금) ‘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’를 긴급 개최*했다.

* (참석) 행정안전부, 환경부, 농림축산식품부, 기상청, 강원특별자치도, 경상북도

- 올해 강원·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*이 적어 댐·저수지 저수율**이 낮아짐에 따라, 강릉시^{오봉저수지 공급지역}와 대구·경북 6개 시·군(대구·달성·영천·경산·청도·칠곡^{운문댐 공급지역})은 생활·공업용수 가뭄 ‘주의’ 단계이다.

* 1.1~7.10일 강수량(mm) : 경북 청도 390(평년대비 70.5%), 강원 강릉 235(평년대비 45.2%)

** 7.11일 기준 저수율(%) : 오봉저수지 29.7, 운문댐 38.1

- 특히, 해당 지역에 당분간 가뭄이 해갈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·공업·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*했다.

* 댐·저수지 상황, 대체 용수 확보 방안, 용수 감량 방안, 인근 지자체 지원 사항 등

-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‘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’를 개최해, 가뭄 진행 및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
-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“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진희 (044-205-63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환 (044-205-6366)